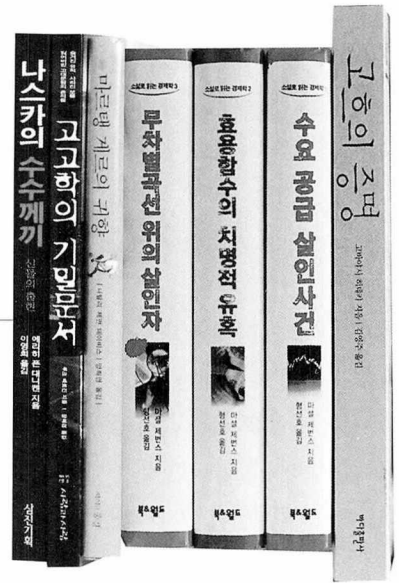


흥미진진한 추리기법으로 인문학의 미궁 빠져 나온다

추리소설 기법 활용한 인문사회과학서들



추리소설의 매력은 하나의 단서를 실마리삼아 미궁에 빠진 사건의 전모를 풀어가는 데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추리소설의 틀 안에 있던 이 추리기법은 이제 더 이상 추리소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에 새로운 문화사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미시사 서술에서 잊혀졌던 사건들의 실체와 인간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추리기법이 원용되는가 하면, 문학과 미술 그리고 문학과 경제학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장르를 결합시키는 효과적인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

미시세계 들여다보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등장해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의 《마르탱 게르의 귀향》(양희영, 지식의풍경)은 우리에게 <마틴 기어의 귀향>이란 영화로 널리 알려진 한 '기이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1540년대 말 프랑스, 한 마을에 사는 부유한 20대 후반의 농민이 가족을 남겨두고 종적을 감춘다. 그로부터 8년 후 마르탱 게르를 자처하는 한 남자가 나타난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부인은 그가 진짜 남편이 아니라며 고소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진짜 마르탱 게르가 나타나면서 마르탱 게르를 사칭한 사기꾼 아르노 뒤 툴의 정체가 밝혀진다.

프랑스 근대사를 전공한 지은이는 한갓 흥밋거리로 치부될 이 사건을 당시 그 사건의 판결을 담당했던 장 드 코라스의 판결기록인 《잊을 수 없는 판결》에 따라 이야기를 재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의 성격, 사고, 의도, 선택 등을 역사가의 상상력과 추리력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친다.

《고호의 증명》(고바야시 히데키, 김영주, 바다)은 고호의 <왼손잡이 자화상>에 그려진 얼굴이 고호가 아닌 다른 남자의 얼굴이라고 밝혀 미술계에 충격을 던졌다. 지은이가 <왼손잡이 자화상>의 위작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주목한 것은 고호 자화상의 특징이 '같은 얼굴은 두번 그리지 않는다'는 철칙에 있다는 점. 지은이는 조형성 검증을 통해 <왼손잡이 자화상>을 위작이라 결론 내리는 과정에서 "고호는 이런 그림을 절대로 그리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진작일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해간다. 더 나아가 위작 자화상의 제작자를 추적하면서, 위작 자화상의 제작 동기와 제작 시나리오 그리고 위작자의 배후에 숨어 있던 공범까지 추리해낸다.

경제학부터 고고학까지 추리소설 기법 다양하게 활용해

<소설로 읽는 경제학> 시리즈(마셜 제번스, 형선호, 북앤월드)는 딱딱한 경제학 이론을 추리소설 기법으로 풀어낸 흥미로운 경제학 입문서다. 추리소설 형식을 띠는 만큼 미궁에 빠진 사건과 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탐정이 등장하는데, 이 시리즈에서 탐정은 경제학 교수로 설정된다. 단지 추리소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탐정이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이 주변 인물들의 알리바이나 정황 증거가 아닌 합리적인 경제학 법칙을 차용한다는 것. 따라서 누군가 비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했을 경우, 그 속의 미스터리와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대칭 정보이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탄력성 등의 경제학 법칙을 알기 쉽게 풀어간다. 소설과 경제학의 경계에 있지만, 얽히고 설킨 사건의 실타래,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범인의 정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결말 등 스릴과 서스펜스를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이 가득하다.

고고학은 추리소설 기법이 가장 빛을 발하는 장르 가운데 하나다. 에리히 폰 대니켈의 《나스카의 수수께끼》(이영희, 삼진기획)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나스카의 지상화에 대한 보고서다. 지은이는 나스카 평원에 그려진 엄청난 크기의 그림을 의계인 도래설과 관련지어 설명하며 그동안 나스카의 수수께끼에 도전한 모든 '설'들의 불합리성을 하나하나 입증한다. 루크 베르그의 《고고학의 기밀문서》(장혜경, 사람과사람)는 은폐된 발견, 사라진 유물과 유적을 추적한 '위험한' 고고학 보고서다. 지은이는 4백만년에 걸친 인류의 진화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은 단지 12개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추리소설 기법은 인문학 영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역사나 역사가들이 간과한 잊혀진 개인, 왜곡된 사건의 실체를 복원해 거대사와 미시사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준다. 인문학의 위기가 출판계의 쟁점으로 떠오른 요즘 흥미와 지식을 고루 갖춘, 추리소설 기법을 활용한 인문사회과학서가 끊이지 않고 출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옥순 기자